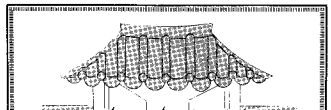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현리란(ID) ; joo3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학교의 해결 노력 필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회계학과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미교과 학생들은 투쟁을 자제하라'는 요지의 소자보가 중앙 대자보판에 나붙었다.

'일부 학생들의 이성을 잃은 감정과 흥분이 우리 캠퍼스의 맑고 싱그러움에 폐수처럼 번지고 있다'는 도입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미교과 사태는 저절 코메디이고 그 투쟁의 방법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비지성적 형태의 근거로 지적된 것이 언론에 보도한 점, 인격매도의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선전, 교수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가혹한 책임사퇴 요구, 학교 당국의 선처를 기다리지 않는 모습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형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 곪은 상처는 마땅히 도려내야지 안보이게 붕대로 감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낫는 것이 아니다.

우리학교 이미지 실추는 우리학교에성회풍이 존재한다는 것이 밖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학교 당국이나 일부 교수들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도 다른 학교 교수나 언론에서 질책당한 것은 한 교수가 성희롱을 자행했다는 사실보다 공정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학교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이번 미교과 사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성희롱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악화와 그간 관련 여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학교당국의 책임 인식이다. 그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학칙에 관련조항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내 성폭력의 문제는 송교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과 교수만의 문제도 아니다. 학생과 학생사이나 교수와 학생, 직원 간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이것은 엄밀히 관리자인 학교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이다.

미교과 정원 1백60명중에서 1백20명이 참석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희 학도의 의지로운 기운을 본다.

경희의 자랑은 결코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오늘의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우리학교의 교훈이 경희의 진정한 자랑이 되었으면 한다.

곽 현 숙(생물·4)

◇…5월은 말한다

광주의 5월병 인식공유와 관심으로 해결해야

부처님 후광에 가려진 광주 2천넋을 기리며

금남로, 도청, 시민군, 망월동.

5월이면 우리 주변에서 넘쳐흐르는 말들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강제된 침묵이었고, 그때의 소리는 은밀한 속삭임이었다. 1988년, 청문회를 기점으로 광주사태가 광주민중항쟁으로 정식 명명되고 누구나 5월이면 광주를 얘기해야 할 것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이제는 '5월 광주'로 불리우며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탑구지 못한다. 어쩌면 광주이외 지역에서의 5·18은 단지 하루의 기념일로만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5·18은 석가탄신일과 겹쳐 부처님의 후광에 광주 2천여 영령이 많은 부분 가려질 수도 있다.

'5월병'이라는 말이 있다. 5월만 되면 광주시민들은 비몽사몽 경험한다고 한다. 알수없는 열기가 남도의 도시를 휘감는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또한 '5월병'은 광주만의 향토병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지식인이 광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도 많은 이들아 그날의 비겁한 자기모습을 기억하고 술에 취한다. 술에 취해 5월의 노래를 부르고 광주출정가를 부른다.

5월 19일관 '한겨레 21'에서는 진압군이 말하는 5월 광주를 다루고 있다. 80년 5월 군대에 있어야 했고, 자신이 속한 부대가 광주진압의 명령을 받아 학살의 현장에서 학살의 총칼이 되었던 계엄군. 똑같은 이땅의 젊은이로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5월 광주의 또다른 피해자인 것이다.

80년대의 대학을 평가하며 5월 광주의 원죄의식을 얘기한다. 80년대의 대학인은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에 대한 반발과 죄의식에 의해 많은 부분이 규정되었다. 당시 대학인에게 광주학살의 보고서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필독서였고, 학내에서 상영되는 광주항쟁 비디오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첫걸음이었다. 광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광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작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문민정부라는 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군인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이 땅에 생겨났다. 이 정부가 출범하여 맞은 첫번째 5월에는 광주항쟁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것으로 그들은 5월을 넘겼으며 5월을 넘기자 배상문제는 흐지부지해졌다. 문민정부가 맞는 두번째 5월에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어차피 어론화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더구나 그것이 자신들의 처부를 드러내는 문제인데 굳이 떠들 필요가 없다. 현 정부는 좋은 친구를 부고있다. 언론에서 다룬 광주문제는 '한겨레 21'의 '5월 광주, 진압군은 말한다'와 '말'지의 광주항쟁당시 강제진압을 거부한 전남도경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당시 국민학생이었다. 뉴스에서 잠시 광주지역에서 소요가 있다는 말이 나올뿐 마정가 제트가 여전히 악당을 쳐부수는 텔레비젼을 보았던 이들이다. 과연 지금의 광주로부터 자유로운가?

저학년들은 광주항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4·19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비리에 대한 비폭력의거라 생각하고 광주항쟁은 시위에 대한 강제진압이 시민들을 자극하여 총을 들게 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남도의 아픔 정도로 생각한다.

고학년들에겐 일정 정도의 거부감까지 있다. "그만큼 울궈먹었으면 됐지 5월만 되면 또 광주냐"라는 불만 섞인 소리가 들린다. 이제는 대학 내에서 광주가 하나의 이슈조차 되지 못한다.

광주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는 과거지향적 향수일 뿐일까?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아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고 정의했다. 대화는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80년 5월과 94년 5월 사이에는 어떤 공감대가 있을까? 그 공감대는 인간적으로는 이웃의 아픔이며 구조적으로는 체제의 모순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식의 생시조차 모르는 광주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의 영정을 부여안고 맑은 눈을 빛내던 당시의 아이인 지금의 청년이 있다. 또한 자신의 머리가 아닌 손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의 책임으로 미쳐버린 진압군의 처자가 있다.

'한겨레 21'에 의하면 일당백의 전투력을 지향하는 공수부대에서는 아직도 충정훈련이라는 시위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군에 가지않은 대학인에게는 공수부대로 입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속한 부대가 시위진압을 명령받고 시위대에게 조준사격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을 진리탐구의 장이라고 말한다. 대학인은 진리를 탐구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도 있다.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올바른 역사적 평가'라는 미완의 과제를 담고 있는 광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침묵은 긍정적일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은 왜 일어났는가? 광주민중항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야 한다. 누가 광주학살의 피해자인가? 누가 광주학살의 책임자인가? 국가권력에 의한 민중학살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않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광주민중항쟁. 14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교시절 수학여행보다도 못한 여운만을 주고있는 광주민중항쟁.

5월병의 처유는 광주의 문제도 아니고 80년의 문제도 아니고 광주민중항쟁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먼저 인식한 사람들의 문제이며 먼저 인식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문제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한 연원과 실천을 모아내는 문제인 것이다.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5월에는 가만히 귀기울여 보자. 80년 5월 광주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박 동 재

(신문방송학과·3)

고 침

본보 1045호와 관련 기숙사 설문조사 기사 중 '애지원장'을 '애지원 운영관리주임'으로, '설계구조상의 문제'를 '운영상의 문제'로 바로잡습니다.

알림터

교수동정

이승룡교수 방미

【수원캠퍼스】▲이승룡(공대·전산과) 6월11일부터 30일까지 자료준비차 미국방문 ▲서주환(산대·조경학과) 5월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북경임업대학교와 자매결연 관계로 중국방문

취업안내

취업복지과 문의

▲크라운베이커리=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4일까지 278-2631연락, 공채 ▲라운운제과(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19일까지 973-0051연락, 공채 ▲대웅제약=영업부문 ○명, 전공제한 없음. 5월19일까지 550-8800연락, 공채 ▲부산파이프(주)=영업부문 ○명, 전공제한 없음. 5월17일까지 797-1881연락, 공채 ▲한국능률협회=관리직 ○명, 회계·경영과. 5월21일까지 719-8225연락, 공채 ▲한국코닥(주)=기술영업·기술지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5일까지 708-5413연락, 공채 ▲보람은행=신입행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19일까지 771-5300연락, 공채 ▲두산신용협동조합=인턴 ○명, 경경대. 5월17일까지 708-5092, 추천 ▲인쌜(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8일까지 901-6242~5연락, 공채 ▲일진(주)=인턴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4일까지 707-9104연락, 공채 ▲신영(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1일까지 855-5011연락, 공채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연희(지리·2) ▲김지열(물리·2) ▲한명화(물리·3) ▲윤학기(지리·2) ▲조삼웅(경영·3) ▲허정렴(경영·2) ▲이종석(정외·4) ▲정재윤(회계·1) ▲이익균(미교·88) ▲김수정(영교·3) ▲조수연(식영·1) ▲박주영(가곤·92) ▲박인숙(의본·1) ▲윤현열(한본·1) ▲김지연(한본·4) ▲김동섭(한본·3) ▲박재민(한본·3) ▲김종윤(한예·2) ▲임철민(한의대·94) ▲오준호(한본·1) ▲이희진(치본·3) ▲이한주(치본·3)

【수원캠퍼스】▲나성민(불문·4) ▲여찬영(서반어·4) ▲고영신(영문·3) ▲박경희(행정·4) ▲최진화(환경) ▲이창녕(우주·3) ▲김경우(유전·4) ▲임소미(전산·2) ▲김승민(전산·2) ▲고경태(기계·2)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은영규(의대·93) ▲신소진(대학원 의상학과 2기) ◇시계=5월13일 도서관 매점앞 복도

【수원캠퍼스】◇지갑=▲노수현(사회대·경영)

동문모임

서현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진주(여)고=오는 17일 오후6시 상원숯불갈비 ▲인명·인학고=오는 16일 오후5시 본과앞 ▲순천(여)고=오는 17일 오후5시 유림회관 ▲의(여)고=오는 17일 오후 5시 경희 보쌈 ▲송원고=오는 17일 오후5시 정문앞 ▲인천·광성고=오는 19일 공대앞 돌다방 ▲점촌·문경=오는 22일 오전9시30분 체대앞 녹원 ▲청주·청석고=오는 18일 오전9시 교문앞 ▲대전고=오는 20일 오후6시 정문

【수원캠퍼스】▲광주 대동고=오는 17일 5시30분 외대 ▲경상사대부고=오는 19일 5시40분 공대식당 ▲현대고=오는 16일 5시30분 공대식당 ▲서현고=오는 17일 5시30분 대학 ▲영일고=오는 16일 5시30분 공대식당

朔風

소모적인 내분은 '경희'를 몰락의 잔치로 이끈다

작년 11월4일 불교사에서 손꼽힐 큰스님 성철종정이 열반했다. 그리고 곡절끝에 지난주 13일의 금요일 월하스님이 새 종정에 취임했다. 반년 남짓한 이 기간 중생들은 불교에 대해 믿음과 배신감의 양끝을 번갈아 맛봤으며, 1천6백년 한국불교는 연반이 아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성철 큰스님이 열반하자 선남선녀들은 그분이 '10년동사 수확을 한해만에 이뤄놓고 떠나셨다'고 추모했다. 그러하여 절집 곳간이 비었어도 절마다 믿음의 향기 넘쳐흐르는 풍요를 누렸었다. 이 풍요에 취해 있던 3월29일 조계사에서 '사태'가 일어났다. 자기들 말로는 '법난'이다. 이후 달포 동안 조계종은 '성철 큰스님 평생 수확을 하루새벽에 다 들어먹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파리하고 몰려보이던 젊은 비구·비구니들(실제로 개혁을 외치며 눈물짓는 모습이 간간 텔레비젼에 비치던 그들은 대부분 의지 굳은 학승들이었고 이들이 개혁추위의 중심세력이었다)의 뜻이 이뤄져 죽음 가까이 갔던 법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명실공히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과 총책임자인 총무원장 의현스님이 자리를 내놓고 종단을 떠나 이름 갖추고 들길에 나섰으로써 조계종 개혁투쟁은 한 매듭을 짓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의현스님은 들길을 나서기 앞서 이런 자기변호를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문중싸움은 없어야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별로 잘못한게 없는데 문중싸움에 휘말려 봉변을 당했다'는 말 아닌가. 이런 그의 주장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더 큰 입씨름으로 번지질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중생은 사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말은 논쟁거리가 될만했다. 의미심장했다. 벼랑에 몰린 의현스님이 쏟아지는 손가락질을 떠넘겨도 되겠다고 생각케 한, 문제의 큰 줄기임을 그는 떠나면서 마지막 말로 '폭로'한 것이다.

우린 여기서 문중싸움이 본질이 된 '불행한 사태'의 막연한 가능성을 손잡아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그런 불씨는 있는 법. 자기경계의 뜻으로 다짐해두자는 말이다.

돌이켜 우리를 보자.

며칠전 사태의 성희롱사건을 접했다. 서울대에서도 그랬고 철원턴도 같은 사건에 걸려 있다니 세계적 유행이긴 한 모양인데 그 일이 우리대학에서 생겼다니 입이 딱 벌어진다.

그런데 한 숨 돌려 생각하면 80년대 초반의 음악대학사건, 작년 의료원 임상교수사건 때 느껴지던 문중싸움 냄새가 코끝에 스친다. 사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밑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문중'과 관계가 있다면 조계종의 법난같은 '경희학난'의 시한폭탄이 거기에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할 터이다.

90년대 초반 한국사학의 앞길엔 생사의 문턱이 여럿 가로놓여 있다. 교육시장개방, 수학능력시험이랄 수 있는 대학종합평가, 그리고 예상되는 대학지원자의 급격한 감소등 난관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시기에 소모적 내분이 있다면 경희 45년의 공든탑을, 그 동안 피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짓밟는 몰락의 잔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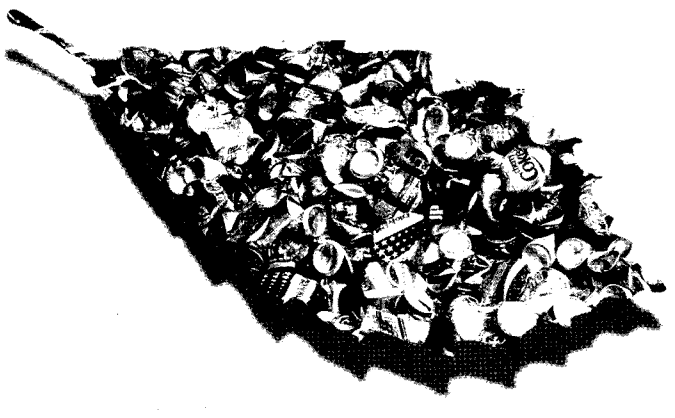
원인이 무엇인가 환부가 어디인가. 교수인가, 학생인가, 제도인가, 풍토인가.

즉시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語田〉

포항제철 메세지 축제편

그린, 그린 축제



그린 축제의 수칙

1. 축제 개막전 우리들은 우리의 캠퍼스를 진정으로 아낄 것을 맹세합니다.
2. 프레온 가스를 사용한 스프레이로 머리를 한껏 세운 파트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입장불가입니다.
3. 전시회 팜플렛, 공연 티켓 등은 모두 재생용지로 만듭니다.
4. 장기자랑 및 각종 대회의 상품으로는 작은 묘목과 씨앗을 준비합니다.
5. 축제 장터에서는 절대 1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6.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파트너와 함께 2시간 동안 캠퍼스 여기저기를 청소해야만 합니다.
7. 축제가 끝난 후 거둔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합니다.
8. 그린 축제 참가 이후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젊은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5월의 축제를 맞이하여 화려한 옷을 갈아입은 캠퍼스 -
그러나 지금, 캠퍼스는 쓰레기와 자연훼손으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자연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린 축제를 열어 봅시다!
우리들의 작은 지구, 캠퍼스 -
우리 대학인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철보국에서 통신보국으로
포항제철